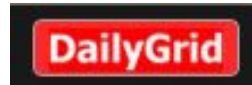




Publication : DailyGrid

Date : 2008/05/31

Subject : More Interoperability Required To Expand Mobile Market



상호 운용성 높여야 모바일 시장 확대 가능

트랙백주소복사 전체 장보기

분류: 통신 작성일: 2008-05-31 18:00
<http://www.dailygrid.net/doc/3/2598>

모바일 사업자들의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넷이벤트 2008'에 참석한 양키그룹 연구원인 케일 맨드러는 30일 현재 근로자들이 IT기기들을 갖고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기술의 호환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기술의 호환 혹은 상호 운용을 위해 관련 업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와이파이 환경으로 무선 인터넷을 쓰고 있는 근로자가, 외부로 나갔을 경우 모바일 기기에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광대역 인터넷에 자동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설명이다.

또한 사무실 내에서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또한 통신망에 상관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회사는 물론 하드웨어, 애플리케이션 회사들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근로자들이 직접 업무에 쓰는 것을 애플리케이션인 만큼 이동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의 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부분 회사의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오피스를 통해 문서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동에 따른 상호 운영성은 낮은 것으로 양키그룹은 평가했다. 반면 구글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상호 운용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모바일 환경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작업을 통해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의 격자 grid@dailygrid.net

글보내기 > Telecom, IT Management, Telecom

○ ★ ○ ★ ★ ○ ★ ★ ★ ○ ★ ★ ★ ★ ○ ★ ★ ★ ★ ★ ▶ [점수주기](#)

포리말(0) | 트랙백(0) | 관련글 | 스크랩

인쇄